

[Original Article]

## 3D digital fashion design using Vivienne Westwood's punk fashion characteristics

Yannan Ly and Yujin Oh<sup>\*†</sup>

Mast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Korea  
Adjunc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Korea<sup>\*</sup>

###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펑크 패션 특성을 활용한 3D 디지털 패션디자인

이 연 남 · 오 유 진<sup>\*\*</sup>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겸임교수<sup>\*</sup>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punk fashion through 3D digital fashion design by analyzing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inherent meanings of the punk fashion expressed in Vivienne Westwood's creations. To this end, the concept underlying punk and its expressive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and the eco-friendly expressive attributes of punk fashion were scrutinized through photos of Vivienne Westwood's collections. The analysis focused on 10 seasonal collections showcased over the past five years, from the designer's 2018 S/S to 2022 F/W collect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Westwood's punk expression was characterized by traditionality, eco-friendliness, playfulness, resistance, and deconstruction. Traditionality appeared in the form of a harmonious redesign of classics to create new works, while eco-friendliness was manifested through the use of slogans and eco-friendly materials and methods. Playfulness conveyed positive messages through comedic situations or characters, and resistance emerged as a means of delivering messages for improving social issues. Finally, the deconstruction of punk was reflected as resistance, boldly destroying fashion structures to express dissatisfaction with society. Punk design in fashion is one of the avenues in which designers effectively express the messages that they want to communicate to society.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exploring punk characteristic design strategies to be used in future fashion.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3D virtual clothing programs is expected to expand in the fashion industry, and continuous research on digital fashion design is anticipated.

Received September 25, 2024

Revised November 02, 2024

Accepted November 19, 2024

<sup>†</sup>Corresponding author  
(wishr@hanyang.ac.kr)

#### ORCID

Yannan Ly

<https://orcid.org/0009-0005-9040-8302>

Yujin Oh

<https://orcid.org/0000-0001-6638-3807>

*Keywords:* Vivienne Westwood(비비안 웨스트우드), punk fashion(펑크 패션), 3D, digital fashion design(3D 디지털 패션 디자인)

## I. Introduction

This paper is a part of a  
master's thesis.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1970년대 저항과 자유의 청년문화인

펑크를 패션으로 표현하며, 펑크 룩(punk look)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 펑크는 청년 문화의 대표적인 스타일 중 하나로 부조리한 질서를 깨고 싶은 자유정신, 새로움에 대한 도전정신을 표현하며, 현재 까지도 단순한 음악장르를 넘어 패션을 포함한 문화 전반과 패션에 꾸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Guerra & Figueredo, 2019). 펑크패션은 디자이너가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펑크패션은 전통적 요소를 혁신적 방식으로 풀어내며 경계를 허물고 새로움을 강조한다(Wilcox, 2004). 펑크패션에 대한 대표적 선행연구로 Kim(1999)은 펑크패션의 특징과 펑크의 하이패션 변화요인을 논하였고, Yim(2003)는 하위문화인 펑크가 주류패션으로 흡수되는 현상과 미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Sohn and Park(2005)은 사회문화현상의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펑크패션의 특성을, Yoo(2006)는 1970년대와 1990년의 펑크패션을 비교하여 사회적 배경과 특징, 내적의미와 패션이미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펑크패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70년대에 시작된 오리지널 펑크룩이 1990년대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패션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펑크가 하이패션에 영향을 미친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이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디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2010년대 초반 컬렉션에 머물러 있다(Kwon, 2015).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패션작품에 나타난 펑크패션의 표현 특성, 내적의미를 분석하여 친환경 패션에 대한 해석과 창의적 표현방법을 모색하고, CLO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패션디자인으로 전개하며 디자인의 다양한 전개 방향성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3D 가상착의 기술은 실제 원단 사용을 줄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과 일치한다. 패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3D 가상착의 기술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프로세스의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펑크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디자인적 접근은 3D 가상착의와 결합될 때, 창의적이고 다원적 의미를 담은 친환경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최근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펑크패션에 나타난 친환경 표현특성을 토대로 현대 펑크패션을 디지털 패션디자인으로 전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펑크패션의 정의와 역사적 맥락, 시대적 변천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펑크패션의 표현특성을 미적 특성과 표현기법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둘째, 201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컬렉션을 분석하여 비비안 웨스트우드 펑크패션의 친환경 표현특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비비안 웨스트우드 패션에서 나타난 친환경적 펑크특성을 바탕으로 CLO 3D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크펑크(silkpunk)를 테마로 디지털 패션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실크펑크란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한 가상의 고대 동양을 배경으로 하는 퓨전 장르로, 전통적 요소와 첨단기술의 환경친화적 결합이 모티브이다. 전통 요소와 첨단기술, 반항적 펑크, 친환경의 키워드를 통해 현대적 펑크로 재해석한 패션디자인을 전개했다.

연구방법으로는 펑크패션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 논문, 단행본, 패션잡지 등을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하였으며, 특성분석을 위해 2018년 S/S부터 2022년 F/W까지 최근 5년 10개 시즌 컬렉션을 사례 수집 범위로 선정하여 패션 전문 웹사이트인 US vogue.com, wwd.com 등을 통하여 총 581장의 사진자료를 수집했다. 수집한 사진자료에서 펑크패션의 표현특성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410장의 사진을 추출하고, 5명의 의류학 분야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통하여 비비안 웨스트우드 펑크패션의 표현특성을 고찰, 분류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CLO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벌의 디지털 패션디자인을 전개했다. 작품 제작을 위해 재생 데님 원단을 디지털 패브릭으로 제작하고, 기존 의복을 재료로 사용하는 업사이클링을 구현하기 위해 해당 의복을 분해하여 컴퓨터에 패턴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재료를 준비했다. 가상환경에서 패턴 제도와 드레이핑, 배치, 봉제를 통해 의복의 형태를 만들고 렌더링하여 최종 결과물을 얻었다.

## II. Literature Review

### 1. Background of punk fashion

펑크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량 생산, 소비 시대

에 접어들면서 획일화된 사회에 대한 반(反)문화 현상의 일환으로 영국 청년 노동자계급에 의해 발생된 문화 운동이다(Guerra, 2019). 70년대 초, 세계 경제 위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영국의 노동자계급 청년들은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 절망, 분노라는 야성적 카타르시스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문화와 예술에 끌어들이었다(Bolton, Hell, Lydon, & Savage, 2013).

핑크는 본래 음악의 한 범주로 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1970년대 인기를 끌며 히피 문화의 후발 주자로 이어지게 되었다. 핑크패션은 단정하고 심미적인 과거 미의식을 파괴하고 고무 소재 바지, 플라스틱이나 그물 소재 셔츠, 마이크로 미니스커트, 슬로건 티셔츠, 무질서한 코디 등 이상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스트리트 패션스타일로 표현되었다(Jang, 1998). 부적절하게 서로 병치된 오브제는 핑크의 D.I.Y. 정신에서 비롯된 무한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발생시켰다(Guerra, 2019). 즉, 핑크패션은 사회계층, 인종차별에 대한 무언의 거부와 미래에 대한 야망의 포기나 나타난 허무주의, 무질서주의, 무정부주의 등 기존 복식 개념에 대한 도전이었다(Yang, Chen, & Roh, 2009).

핑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의식에 충격을 주었고, 기존 심미에서 탈피하는 촉매제로서 예술과 의복에 신선함을 줬다. 1980년대 이후 핑크패션은 뉴 로맨틱티즘(new romanticism)과 고스(goth) 등 다양한 하위문화와 융합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전의 핑크스타일로 굳어지던 것들을 뒤집는 독창성을 보여주며 패션의 메인스트림으로 진출하게 되었다(Bolton et al., 2013; Yum, 1998). 1990년대의 핑크는 X세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그런지, 힙합 등 다른 장르와 결합하여 하이패션에서 지속적으로 차용되고 있다. 현대의 핑크패션은 다른 하위문화와 융합하며 꾸준히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한다. 청년 문화에 개성 표현, 사회 참여, 창의성 발현의 수단을 제공하며, 동시에 기존 패션 산업과 사회 규범에 대한 도전과 재해석의 기회를 제공한다(Kwon, 2015). 현대는 1970년대보다 훨씬 포용적인 사회 환경으로, 다양한 매체를 언어로 수용하며 여러 가지 문화가 혼재되어있는 다양한 핑크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 2. Characteristics of punk fashion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핑크 스타일의 표현특성은 ‘유희성(playfulness)’, ‘장식성(decorativeness)’, ‘관능성(sensuality)’, ‘해체성(deconstruction)’, ‘저항성(resistance)’ 5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Table 1).

‘즐겁게 놀자’는 의미의 유희는 인간이 강제성을 가지지 않고 자유의지로 즐겁게 행하는 모든 태도를 의미한다(Huh & Kim, 2020). 패션에서 유희성은 강조, 변형, 부조화, 무지, 갈등, 외설 등을 통해 일상적인 규칙을 위반하는 이질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느끼게 하여 즐거움을 유발한다(Kim & Lee, 2012). 핑크패션의 유희성은 상징적(밝은) 컬러 사용, 과장된 형태, 긍정적 메시지 전달, 이질적 요소를 패치워크로 결합한 부조화가 유희적 표현으로 나타났다(Lee, 2019; Lim & Jeong, 2014; Fig. 1).

장식성은 모든 예술 분야의 공통적인 성격으로 오늘날 핑크를 표현하는 방법 중 가장 상징적이며 패션에도 자주 활용되는 특성이다(Kim, 2012). 핑크패션에서의 장식성은 자유로운 감각과 개성의 추구, DIY 형식, 다양한 액세서리 착용으로 나타났다(Kwon, 2015; Lee, 2019; Park, 2010; Fig. 2). 초기 핑크의 장식성은 아름다움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인간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액세서리로 표현하고 했지만, 최근의 핑크는 DIY로 자유로움과 개성을 표현한다(Guerra, 2019; Kwon, 2015).

관능성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인 성적 자극을 통한 관능적 쾌락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강조해 형태적으로 과장하거나 노출시켜 표현한다. 핑크패션에서 관능성은 광택소재의 사용, 형태적 과장과 노출,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 표현, 관능적, 에로틱한 분위기 등으로 나타난다(Kwon, 2015; Lim & Jeong, 2014; Fig. 3). 관능미는 성적 매력의 이미지 표현으로 과거에는 신체 노출을 통한 여성성 강조가 퇴폐적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여성의 주체적 존재를 인정하고 여성 인체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주체적 사고와 자신감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Kwon, 2015; Park & Kim, 2016).

해체성은 의상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형태의 중첩, 왜곡, 변화와 재단, 소재의 믹스매치 핑크적 디테일을 활용한 표현으로 나타난다(Kwon, 2015; Park & Kim,

&lt;Table 1&gt; Characteristics of punk fashion expression in previous studies

Methods	Park & Kim (2020)	Lee (2019)	Kwon (2015)	Lim & Jeong (2014)	Park (2010)	Yang et al. (2009)	Expression characteristics
Symbolic color	—	○	—	○	—	—	Playfulness
Exaggerated form	—	○	—	○	—	—	
Delivering a positive message	—	○	—	○	—	—	
Playful expression	—	○	—	○	—	—	
Freedom and individuality	—	○	○	—	○	—	Decorativeness
D.I.Y.	—	○	○	—	○	—	
Utilize a variety of accessories	—	○	○	—	○	—	
Glossy materials	—	—	—	○	—	—	Sensuality
Exaggerated form and exposure	—	—	—	○	—	—	
Expressing confidence	—	—	—	○	—	—	
Sensual, erotic mood	—	—	○	○	—	—	
Overlapping, distorting, and changing shapes	—	—	○	—	—	—	Deconstruction
Cutting, material mix and match	○	—	○	—	—	○	
Destroy the doubles principle	○	—	○	—	—	○	Resistance
Expressions through letters, and symbols	○	—	○	—	—	○	

2020; Yang et al., 2009; Fig. 4). 펑크패션에서 해체의 유형은 의미, 재료와 표현방식에 대한 해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현방법이나 디자인 요소에서도 변질, 치환, 탈피, 키치, 재해석 등 다중요소와 방법으로 나타난다(Kwon, 2015; Yang et al., 2009). 기존의 구조적 고정관념을 우회해 모든 디자인 요소를 새로운 형태로 상상하고 과거의 모든 스타일과 결합해 조합함으로써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패션을 제시했다.

저항성은 하위문화에 해당하는 펑크가 음악, 영화, 복식 등에서 기호적인 문화의 저항을 통하여, 독특한 스타일을 갖도록 하였다. 펑크패션에서 저항성의 표현은 주로 복식원리 파괴, 옷핀, 펀칭 등 액세서리와 장식문자, 기호, 심볼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

난다(Kwon, 2015; Park & Kim, 2020; Yang et al., 2009; Fig. 5).

### 3. Vivian Westwood and eco-friendliness

비비안 웨스트우드드는 전통 관습과 시스템에 대한 반항으로, 반 패션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함으로써 펑크를 전개하였다(Sohn & Park, 2005). 파격적 시도와 전통과 비전통의 융합은 비비안 웨스트우드 패션에 있어 핵심 요소로 작용했고, 자유롭고 반항적인 디자인 언어와 함께 그녀가 추구하는 독특한 디자인 스타일에 적용됐다(Kim & Cho, 2007). 비비안 웨스트우드드는 대표적인 액티비스트로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패션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펑크가 주류패



<Fig. 1> Playfulness of punk  
Reprinted from Vogue.  
(2017a).  
<https://www.vogue.com>



<Fig. 2> Decorativeness of punk  
Reprinted from Hodgson.  
(2020).  
<http://punctuationmag.com>



<Fig. 3> Sensuality of punk  
Reprinted from Vogue.  
(2017d).  
<https://www.vogue.com>



<Fig. 4> Deconstruction of punk  
Reprinted from Vogue.  
(2016).  
<https://www.vogue.com>



<Fig. 5> Resistance of punk  
Reprinted from Vogue.  
(2018f).  
<https://www.vogue.com>

션으로 자리 잡은 이후 친환경 패션을 새로운 저항패션의 키워드로 표출하고 있다(Cho & Lee, 2022).

친환경 패션은 1960년대 말 환경보호운동을 배경으로 시작되어 히피룩, 에스닉룩 등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에서 시작되었다. 1970~80년대에는 에너지 위기

가 부각되며 환경보호를 고려한 소재나 천연소재, 자연을 연상시키는 색채의 사용을 강조하는 그린디자인으로, 이후에는 동물 모피사용에 대한 반대를 기반으로 하는 에콜로지 컨셉으로 확장되었다(Ha & Park, 2009). 1990년대에 들어서는 환경을 위한 국제기구의

규제와 웰빙, 건강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성과 지속가능 개념이 강조되며 다양한 친환경 신소재가 등장하고, 리디자인 패션, 업사이클링 등의 새로운 접근법이 대두되었으며, 환경규제, 인증 표준화, 공정거래, 작업환경 개선 등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하게 되었다(Yoh, 2024). 이러한 발전 과정을 통해 친환경 패션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으로 진화해왔다(Kim, 2024).

최근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컬렉션과 캠페인에서는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소재와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패션산업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있다(Kim, 2014; Kim, 2023).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2014년 그린피스와 함께 북극에서의 석유 시추를 막고, 북극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Save the Arctic' 캠페인을 벌였으며, 기후 변화와 대량생산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Nam, 2015). 이는 펑크정신의 본질인 사회 변혁의 추구가 환경보호라는 현대적 과제로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 Eco-Friendly Characteristics of Vivian Westwood Punk Fashion

펑크패션은 권력에 대한 저항의 표현방식으로, 국가, 권력, 성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반발을 보여준다. 최근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저항을 패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펑크 패션에서 나타나는 친환경적 표현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집단 평가를 수행했다. 패션 전문 웹사이트

US VOGUE(<https://www.vogue.co.kr>)와 Pinterest(<https://www.pinterest.co.kr>) 등을 통하여 친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 2018 S/S부터 2022 F/W까지 10개 시즌의 컬렉션 사진 자료 581장을 수집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펑크패션의 특성인 유희성, 장식성, 관능성, 해체성, 저항성이 시간적으로 나타난 사례를 410장의 자료를 추출하여 이미지 샘플을 준비했다. 특성 분석은 의류학 분야 전문가 5명이 각 이미지 샘플에 나타나는 표현특성을 개별 평가하고 집단 간 토론을 통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채택하고 검증했다. 분석 결과, 비비안 웨스트우드 펑크 패션의 친환경적 표현특성은 '전통성(traditionality)', '친환경성(eco-friendliness)', '유희성(playfulness)', '저항성(resistance)', '해체성(deconstruction)'으로 나타났다으며, '전통성(27.3%)', '유희성(25.6%)', '저항성(23.4%)', '친환경성(16.8%)', '해체성(6.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현대 패션은 다양한 디자인 특성이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녀 컬렉션 별 특성의 비율 도출은 무의미하여 진행하지 않았다.

#### 1. Eco-friendliness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최근 모든 컬렉션에서는 친환경성이 내재되어 있다.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디자인 요소를 결합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친환경적 콘셉트를 알리고 패션디자인을 하나의 언어로써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2010년부터 'Ethical Fashion Initiative'와 협업해 아프리카의 소규모 제작자들과 연계한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다. 2017 F/W 시즌부터는 남녀 합동 컬렉션을 진행하여 남용되던 컬렉션 피스 수를 줄이고,

<Table 2> Frequency of punk expression eco-friendly characteristics in Vivian Westwood collection

Punk expression characteristics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
Traditionality	9	19	31	31	22	112 (27.3)
Playfulness	41	49	2	10	3	105 (25.6)
Resistance	17	27	30	12	10	96 (23.4)
Eco-friendliness	10	12	8	18	21	69 (16.8)
Deconstruction	14	4	4	4	2	28 ( 6.8)
Total	91	111	75	75	58	410 (100.0)

2018 F/W부터는 일회성의 런웨이 제작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친환경성이 도드라지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2018 S/S는 친환경적인 콘셉트로 모델이 착용한 망사 스타킹 안에는 통조림, 물병, 플라스틱 공 등 쓰레기들을 넣어 기후변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규탄하는 모습을 표현했다(Fig. 6). 2019 F/W 컬렉션은 환경 문제에 대한 유머가 티셔츠와 스커트에 그래피티 프린트와 슬로건으로 등장했다(Fig. 7). 2021 F/W 컬렉션은 재생 데님, 친환경 실크, 오가닉 코튼, 재생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혁신적인 친환경 프린팅원단을 사용하여 디자인되었다(Fig. 8).

2. Traditionality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영국의 전통적 요소들을 유머를 곁들여 현대적으로 결합했다(Kim & Cho, 2007; Song & Kim, 2005). 전통적인 영국 패브릭에 여러 천연 패브릭을 혼합한 패브릭으로 과거 전원생활과 자연친화적 향수를 일으킨다(Kim & Cho, 2007). 영국 전통 직물인 해리스 트위드, 타탄 등을 현대적인 런던 스타일과 혼합한 크로스오버가 자주 나타나는데, 다

양한 영국 부족의 컬러가 들어가는 체크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트레이드 마크로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디자이너의 창의력을 보여주며,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하고 있다(Kang & Kim, 2018). 2020 F/W 컬렉션에서 체크를 통해 클래식과 아방가르드, 스트리트 감성을 표현하였으며, 하이힐과 메탈릭 주얼리, 반항적 포즈로 British rock 특유의 속성을 이어나갔다(Fig. 9). 2021 F/W 컬렉션에서는 색상, 배열, 크기, 조합 방식 등의 변화를 준 다양한 체크무늬를 혼합 사용하여 클래식한 타탄체크, 헤링본, 웨일스 체크와 영국식 재단을 조화롭게 융화시켜 새로운 구성과 클래식의 균형을 보여주었다(Fig. 10). 2022 F/W 컬렉션에는 프레피 스타일의 타탄체크를 과감하게 믹스했다(Fig. 11).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전통을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을 추구하는 철학으로 영국 패브릭의 잠재성을 재해석했다. 이는 고품질의 전통적 제품이 오래 사용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친환경적 소비 철학과 이어진다.

3. Playful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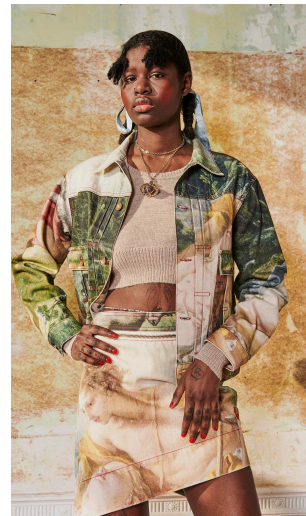
유희성은 이질적인 요소와 소재를 유머, 풍자, 부조리 등의 요소와 결합해 재미와 웃음을 선사한다. 밝고



<Fig. 6> Vivienne Westwood 2018 S/S Reprinted from Vogue. (2017b). <https://www.vogue.com>



<Fig. 7> Vivienne Westwood 2019 F/W Reprinted from Vogue. (2019a). <https://www.vogue.com>



<Fig. 8> Vivienne Westwood 2021 F/W Reprinted from Vogue. (2021a). <https://www.vogue.com>





<Fig. 9> Vivienne Westwood  
2020 F/W  
Reprinted from Vogue.  
(2020a).  
<https://www.vogue.com>



<Fig. 10> Vivienne Westwood  
2021 F/W  
Reprinted from Vogue.  
(2021b).  
<https://www.vogue.com>



<Fig. 11> Vivienne Westwood  
2022 F/W  
Reprinted from Vogue.  
(2022).  
<https://www.vogue.com>

상징적인 색상, 과장과 축소, 메이크업, 낙서 등의 요소와 의상의 결합을 통해 청년문화를 표현하고 유머러스한 효과를 나타낸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유희적이고 독특한 디자인, 슬로건 등을 통해 얻은 주목도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유희성은 자칫 심각하고 지루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가볍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018 S/S 컬렉션은 'The end of the world'를 주제로 서커스 퍼포먼스와 런웨이를 결합해 재미를 더했다. 모델의 얼굴은 마치 싸운 뒤처럼 찰과상, 입술 깨짐, 멍 등의 효과를 내는 메이크업으로 표현되었다. 서커스 공연자 무언극과 운동선수 및 체조 선수를 흉내거나 미친 듯이 춤을 추기도 했다(Fig. 12). 2018 F/W 컬렉션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우스갯소리를 낙서 같은 표어로 표현하고, 밀리터리 패턴, 활로 국기를 쓰는 장면 등으로 재미를 더했다(Fig. 13). 2019 S/S 컬렉션은 이질적 소재의 믹스와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사람과 고릴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명하는 유희의 표현을 선보이고 있다(Fig. 14).

#### 4. Resistance

저항의 표현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과거의 핑크

가 사회의 부조리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패션을 통해 표출했다면, 최근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핑크는 환경문제를 가중시키는 기존 패션산업에 대한 저항과 친환경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핑크와 쿠티르의 결합, 이질적 요소의 크로스오버, 제3세계 문화 수용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과격했던 저항성은 슬로건 패션과 메이크업, 무대 구성 등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다(Yum, 1998). 2018 F/W 컬렉션은 해시태그 '#DontGetKilled'를 모티브로 밀리터리 스타일의 옷을 통해 패션으로 지구 기후 변화를 막겠다고 서약했다(Fig. 15). 2019 S/S 컬렉션에서는 과격한 아나키즘 스타일을 화보로 구현했다. 햇불을 들고 'BUY LESS'라는 슬로건이 붙은 의상을 입은 모델, 확성기를 들고 있는 모델 등 장면별 모델 구성을 통해 예술적 저항성을 보여주었다(Fig. 16). 2019 F/W 컬렉션은 환경문제에 대한 유머가 그래피티 프린트와 슬로건으로 등장하고 있다(Fig. 17).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저항적 특성을 통해 성의 양면적 가치를 표출한다. 시스루나 스트레치 소재를 활용해 몸매의 곡선과 여성성을 강조하여 남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수단이 아닌 주체적인 여성의 자신감을 표현한다(Yang & Hahn, 2005). 2019 S/S 컬





<Fig. 12> Vivienne Westwood  
2018 S/S Reprinted from  
Vogue. (2017c).  
<https://www.vogue.com>



<Fig. 13> Vivienne Westwood  
2018 F/W Reprinted from  
Vogue. (2018a).  
<https://www.vogue.com>



<Fig. 14> Vivienne Westwood  
2019 S/S Reprinted from  
Vogue. (2018c).  
<https://www.vogue.com>



<Fig. 15> Vivienne Westwood  
2018 F/W  
Reprinted from Vogue.  
(2018b).  
<https://www.vogue.com>



<Fig. 16> Vivienne Westwood  
2019 S/S  
Reprinted from Vogue.  
(2018d).  
<https://www.vogue.com>



<Fig. 17> Vivienne  
Westwood 2019 F/W  
Reprinted from Vogue.  
(2019b).  
<https://www.vogue.com>

렉션에서는 옆선에 깊은 슬릿 디테일을 더한 자카드 드레스는 싸우는 총사를 모티브로 아나키즘 스타일이 드러났다(Fig. 18). 2019 F/W 컬렉션은 비비드한 그

래피티가 가득한 코르셋으로 보디라인을 강조해 섹시한 욕구를 표현했다(Fig. 19). 2020 F/W 컬렉션은 코르셋에 풍성한 주름스커트를 매치해 사랑스럽고 섹시

한 느낌을 자아낸다(Fig. 20).

### 5. Deconstruction

해체주의는 기존의 구조적 고정관념을 우회해 모든 디자인 요소를 새로운 형태로 상상하고 과거의 모든 스타일을 조합해, 보다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패션을 제안했다(Kwon, 2015). 해체주의적 패션디자인은 현대적 패션 구조에 대한 과감한 도전으로, 중첩, 왜곡, 규모의 변화 등을 통해 패션 구조를 과감하게 파괴하고 엉터리 조합, 멋대로 쌓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연을 만들어 재구성한다(Kwon, 2015; Park & Kim, 2020; Yang et al., 2009). 핑크패션에서 해체주의의 표현은 대량생산을 반대하는 DIY 방식, 기존 의복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리디자인, 업사이클링 등 친환경적 표현방법으로 연결되었다.

2021 F/W 컬렉션은 프랑스의 화가 부세의 그림 ‘다프니와 클로에(Daphnis & Chloe)’에서 영감을 받아 양복의 어깨를 해체주의적으로 표현했다(Fig. 21). 2020 S/S는 셔츠의 칼라를 재구성한 리디자인을 선보였으며, 2022 S/S 컬렉션은 바지를 파격적으로 해체하여 재구성하여 전통을 뒤집는 매력을 선사했다(Fig. 22 and 23).

## IV. Development of 3D Digital Fashion Design

### 1. Production intention

본 연구에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패션에서 나타난 친환경적 핑크특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핑크를 재해석한 디지털 패션디자인을 전개하였다. CLO 3D는 가상착의 소프트웨어로 의류 제작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소모되는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어 친환경적으로 디자인의 다양성과 다각화를 보여줄 수 있다. 디자인 테마는 ‘실크핑크(Silkpunk)’로 공상과학 소설가인 Ken, Liu가 만든 용어이다. 아시아 문화와 역사에서 영감을 받아 기술, 엔지니어링, 시, 언어를 사용하는 과학과 판타지의 혼합 장르이며 핑크장르 특유의 권위에 대한 반항과 저항이 핵심요소이다(Jin, 2022). 실크핑크에서는 기능만큼 중요한 형태를 강조하는데,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한 가상의 고대 동양을 배경으로 자연과 융합될 수 있도록 대나무, 비단, 조개 껍질 등을 재료로 하는 유기적인 기술이 사용된다(Vergara, 2023).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요소와 첨단 기술의 환경친화적 결합을 모티브로 하는 실크핑크에서 영감



<Fig. 18> Vivienne Westwood  
2019 S/S  
Reprinted from Vogue.  
(2018e).  
<https://www.vogue.com>



<Fig. 19> Vivienne Westwood  
2019 F/W  
Reprinted from Vogue.  
(2019c).  
<https://www.vogue.com>



<Fig. 20> Vivienne Westwood  
2020 F/W  
Reprinted from Vogue.  
(2020b).  
<https://www.vogue.com>



<Fig. 21> Vivienne Westwood  
2021 F/W  
Reprinted from Vogue.  
(2021c).  
<https://www.vogue.com>



<Fig. 22> Vivienne Westwood  
2020 S/S  
Reprinted from Vogue.  
(2019d).  
<https://www.vogue.com>



<Fig. 23> Vivienne Westwood  
2022 S/S  
Reprinted from Vogue.  
(2021d).  
<https://www.vogue.com>

을 받아 현대의 친환경 핑크패션을 표현하고자 한다.

디자인 의도와 전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고 캐주얼한 무드의 jumper, cargo pants 등의 아이템으로 총 5개 착용의 여성복을 디자인하였다. 둘째, 친환경적인 재생 데님과 버려지는 의류를 업사이클링하여 소재로 사용하여 환경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친환경성을 표현했다. 재생데님 원단을 스캔하여 재질과 물성을 실물과 유사하게 조정하여 디지털 패브릭을 제작했다. 업사이클링은 의복의 재봉선을 뜯고 디지털자저를 통해 동일한 패턴을 입력하여 3D 환경에서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셋째, 영국의 전통 소재인 옥스퍼드와 타탄체크와 동양 전통 복식의 평면재단을 활용하여 전통을 존중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전통성을 표현했다. 평면재단은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의 양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 잠재성이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넷째, 친환경적 특성을 바탕으로 부드러움과 강함이 공존하는 현대 여성을 통해 환경보호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저항성을 표현하였다. 과감한 노출과 대비되는 금속 스티드, 가죽 벨트의 믹스매치와 남성복을 재료로 한 직선적 실루엣으로 성역할의 경계를 허물고 중성적이고 반항적인 이미지로 연출했다. 다섯째, 보편

적인 의류를 분해하여 다시 재조립하거나, 전통적 요소를 뒤집고 재구성하는 업사이클링으로 의복을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해체성과 맨 몸에 맨 넥타이, 셔츠에서 소매만 남은 듯 희극적 요소를 살려 환경문제를 즐겁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희성을 표현하였다(Table 3).


## 2. Development of 3D digital fashion design

디자인 I 은 베스트, 재킷, 카고팬츠로 구성되며, 친환경성, 전통성, 저항성을 강조했다.

재생데님을 사용한 짧은 집업 재킷은 소매를 절개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금속 스티드로 연결하여 반항적인 느낌을 주었다. 직선적 실루엣의 조끼는 큰 사이즈의 남성 셔츠를 업사이클링하여 소매와 칼라를 떼어내고 기존 주머니와 뒷판 요크에 추가적인 주머니를 부착하여 제작했다. 팬츠는 재생 데님 소재와 옥스퍼드 체크 원단을 믹스한 카고팬츠로 과장된 크기의 주머니와 밑단에 긴 패널을 부착하여 주름을 만들고 발목위치에서 고정하여 동양적 느낌을 주었다(Fig. 24). 디자인 I 에서 친환경성은 재생소재 사용과 셔츠 업사이클링, 탈부착 방식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오래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타나며, 소재, 팬츠의



<Table 3> Production planning

	Design I	Design II	Design III	Design IV	Design V
Item	Jumper, vest, pants	One-piece	Coat, top, pants	Top, pants	Coat, one-piece
Characteristics	Traditionality eco-friendly resistance	Traditionality eco-friendly deconstruction	Traditionality eco-friendly resistance deconstruction	Traditionality eco-friendly playfulness resistance deconstruction	Traditionality eco-friendly resistance deconstruction
Material	Recycled denim, tartan check, oxford				
Style					

실루엣으로 전통성을 나타냈다. 저항성은 남성복을 재료로 직선적인 실루엣의 유니섹스한 무드와 금속 스티드의 사용을 통해 증성적이고 반항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

디자인 II는 재킷 형태의 원피스로 밑단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져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는 A라인 실루엣이다. 그레이 컬러의 셔츠를 해체한 뒤, 재생 데님소재와 함께 재결합하여 소매와 밑단부분에 사용하여 친환경성과 해체성을 표현했다. 원피스 패턴은 동양적인 평면재단을 하여 직선적으로 떨어지는 형태를 기본으로, 허리와 어깨 부분에 밴드형태의 스트랩을 조여서 인체에 밀착되며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도록 연출했다. 주머니와 칼라 부분에 체크 원단을 패치워크로 붙여 전통적 요소를 캐주얼하게 연출했다(Fig. 25).

디자인 III는 둥글고 풍성한 실루엣의 코트와 탑, 팬츠로 구성되며, 친환경성, 전통성, 저항성, 해체성을 표현했다. 코트는 톱니바퀴 형태의 언밸런스한 솔칼라, 몸판은 동양적인 평면재단으로 다트가 없이 여러 개의 패널이 연결되어 기하학적 실루엣을 보여주며, 왼쪽 밑단은 넓은 마름모형 패널이 자연스러운 주름을

형성한다. 민소매 튜브탑은 어깨와 허리부분에 가죽 벨트가 몸을 조여 고정하는 형태이다. 팬츠는 체크무늬의 발목 기장으로 주머니를 해체하여 길으로 드러나도록 부착하였다(Fig. 26). 재생소재 사용과 재단 시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전통적인 평면재단을 통해 친환경성과 전통성을 보여주며, 해체적 방식의 주머니, 칼라 디자인에서 해체성과 저항성을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 IV는 뷔스티에에 탑, 카고팬츠로 구성되며, 친환경성, 전통성, 유희성, 저항성, 해체성을 표현했다. 탑은 여성의 바디라인을 강조하기 위해 뷔스티에에서 허리를 조이는 부분을 삭제하는 형태로 섹시하면서 자유로운 느낌을 강조하며, 전통성과 저항성을 표현했다. 포멀웨어의 정석인 넥타이와 셔츠를 해체하여 탑의 앞중심선과 목을 따라 넥타이처럼 보이는 패널을 넣고 셔츠 소매 팔토시를 추가하여 기존 포멀웨어를 풍자하며 유희적으로 해석했다. 카고팬츠는 돌출된 체크 패턴 주머니와 사선으로 재단된 재생 데님을 패치워크했고, 엉덩이 양옆으로 바디의 볼륨감이 부각되도록 입체적인 줄무늬 패널을 넣어 해체성을 표현했다(Fig. 27).

디자인 V는 코트와 원피스로 구성되며, 친환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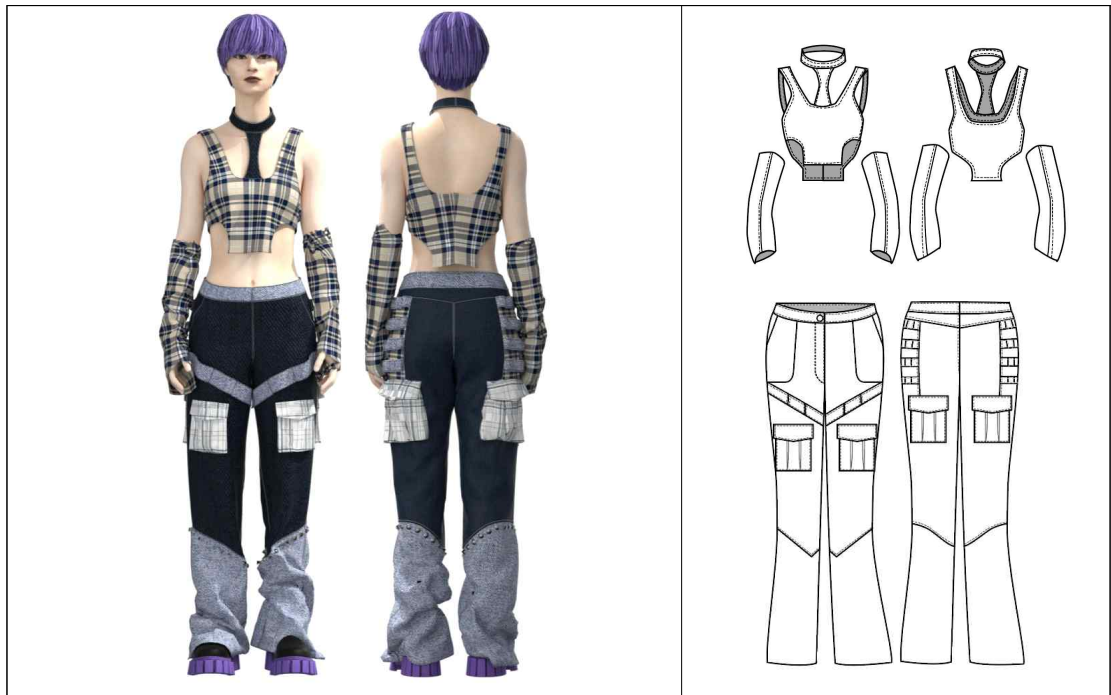
<Fig. 24> Design I, front & back



<Fig. 25> Design II, front & back



<Fig. 26> Design III, front & back



<Fig. 27> Design IV, front & back



전통성, 저항성, 해체성을 표현했다. 높은 하이칼라와 풍성한 소매를 가진 우아하고 전통적인 체크 케이프를 핑크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재생데님을 재료로 가슴이 드러나는 짧은 기장으로 변형하고, 소매 부분이 탈부착되도록 디자인 했다. 원피스는 바디라인을 드러내는 타이트한 실루엣으로 허리의 양옆을 과감하게 원형으로 컷팅하고 은색스터드로 테두리를 장식하여 섹시하고 도발적인 이미지로 저항성을 연출한다. 원피스 몸판에는 생지에 가까운 도톰한 재생 데님원단을 사용하고 밑단에는 워싱으로 부드럽게 가공된 데님원단을 러플로 연출하여 2가지 데님소재를 대비되게 매치하였다(Fig. 28). 고전적이고 우아한 아이템을 핑크적으로 재해석하고 의복 요소를 분해한 탈부착 방식을 사용하여 전통성과 친환경성, 해체성을 표현했다.

### V. Conclusion

패션디자인은 시대의 기준과 미적 트렌드를 따르게 마련이다. ‘핑크’는 대표적인 청년층 문화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스타일 중 하나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핑크패션에서 전하는 반항적인 정신은 전통적 패션에서 심미적인 도발을 보여주며, 환경 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담고 다양한 소재를 접목하여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컬렉션을 통해 최근 핑크패션의 표현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패션디자인을 전개하여 디지털 패션디자인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비비안 웨스트우드 핑크패션의 친환경적 표현특성은 ‘친환경성’, ‘전통성’, ‘유희성’, ‘저항성’, ‘해체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친환경성’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생태계 보존에 대한 견해와 표현으로, 슬로건이나 친환경 원단의 사용 및 공법 등을 통해 드러난다. 둘째, 비비안 웨스트우드 핑크패션의 ‘전통성’은 클래식한 영국식 재단과 전통 소재, 색상 등을 조화롭게 재설계하여 고전과 새로운 작품을 균형있게 구현하였다. 셋째, ‘유희성’은 희극적 상황이나 캐릭터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넷째, ‘저항성’은 과거 파괴적이고 과격했던 표현에서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 형태로 변화



<Fig. 28> Design V, front & back

했다. 다섯째, 핑크의 ‘해체성’은 기존 패션의 구조를 과감히 파괴하고 재조합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저항성이 표현되기도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비안 웨스트우드 핑크패션에 나타난 친환경적 특성을 활용한 3D 디지털 패션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작품 제작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패션을 통해 ‘핑크스타일, 환경 보호’를 키워드로 핑크특성을 가진 다양한 디자인과 스타일의 전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 둘째, 서양의복과 동양적 평면재단, 전통적인 타탄체크와 젊음과 반항의 상징인 데님, 로맨틱한 리플과 단단한 가죽 벨트 등, 타이트한 뷔스티에 탑과 헐렁한 카고팬츠 등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핑크패션에 다양한 디자인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CLO 3D 프로그램의 활용은 전통적 설계 구성 방법의 표현법을 뛰어넘어, 디자인 효율성을 높여 기존 디자인 전개와 제작 방법에 비해 큰 장점이 있었다. 또한 의류 원단의 낭비를 줄이고 의류 제작 과정에서 시간과 경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이를 통해 핑크의 친환경성을 구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패션 분야의 핑크스타일은 디자이너가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향후 패션에 활용될 핑크특성의 디자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패션 산업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패션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Bolton, A., Hell, R., Lydon, J., & Savage, J. (2013). *Punk: Chaos to couture*.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 Cho, M., & Lee, Y. (2022). Characteristics of design activism in Vivienne Westwood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72(6), 20-38. doi:10.7233/jksc.2022.72.6.020
- Guerra, P. (2019). Punk, fashion and aesthetic cosmopolitanism. *Journal of Textile Science & Fashion Technology*, 3(4), 1-8. doi:10.33552/JTSFT.2019.03.000568
- Guerra, P., & Figueredo, H. G. (2019). Today your style, tomorrow the world: Punk, fashion and visual imaginary. *Moda Arte e Design*, 12(23), 112-147. doi:10.5965/1982615x12232019112
- Ha, S. Y., & Park, J. O. (2009). Characteristics of design elements in environment-friendly fashion: Focus on the content analysis of previous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8), 1280-1292.
- Hodgson, S. (2020, July 1). Punk and disorderly: The enduring impact of punk rock on design and culture. *Punktuation*. Retrieved October 20, 2024, from <https://www.punktuationmag.com/punk-and-disorderly-the-enduring-impact-of-punk-rock-on-design-and-culture/>
- Huh, G. Y., & Kim, Y. (202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lay in contemporary menswear fashion design. *Journal of Basic Design and Art*, 21(3), 443-454. doi:10.47294/KSBDA.21.3.32
- Jang, A.-R. (1998). Semiotic interpretation of Vivienne Westwood's works reflected punk roc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9, 197-215.
- Jin, E. X. (2022, November 14). What Is ‘Silkpunk’? *Sixth Tone*. Retrieved October 20, 2024, from <https://www.sixthtone.com/news/1011617>
- Kang, M. J., & Kim, M.-Y. (201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hecked fashion image in the Vivienne Westwood collection.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21(4), 127-141. doi:10.16885/jksc.2018.12.21.4.127
- Kim, E. Y., & Lee, M. S. (2012). A study on the element of fun in fashion design by Jeremy Scot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2(3), 43-58.
- Kim, G.-L., & Cho, K.-H. (2007). A study on fashion design of Vivienne Westwood: Focusing on since 1980'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1(2), 14-31.
- Kim, M. (2024). A study on the effect of consumption value satisfaction on brand image and re-

- purchase intention of eco-friendly fashion product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32(4), 564-576. doi:10.29049/rjcc.2024.32.4.564
- Kim, M. J. (2014, April 23).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친환경 디자인 [Vivian Westwood's Eco-Friendly Design]. *Allure*. Retrieved October 20, 2024, from <https://www.allurekorea.com/2014/04/23/%EB%B9%84%EB%B9%84%EC%95%88-%EC%9B%A8%EC%8A%A4%ED%8A%B8%EC%9A%B0%EB%93%9C%EC%9D%98-%EC%B9%9C%ED%99%98%EA%B2%BD-%EB%94%94%EC%9E%90%EC%9D%B8/>
- Kim, S.-J. (1999).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 and changes of punk fashion. *The Journal of Design*, 7, 0-25.
- Kim, S. R. (2023, January 10). 디자이너, 운동가 그리고 아이콘을 넘어, Vivienne Westwood [Beyond designers, activists and icons, Vivienne Westwood]. *Visla Magazine*. Retrieved October 20, 2024, from <https://visla.kr/feature/203046/>
- Kim, S. Y. (2012). Cape design characteristics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4), 400-411. doi:10.5850/JKSCT.2012.36.4.400
- Kwon, H. J. (2015). Aesthetic observation of punk-fashion revealed after 200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5(1), 69-89.
- Lee, M. (2019). *Analysis of popular stars' punk style make-up*.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Lim, J.-M., & Jeong, S.-Y. (2014). A study on a punk makeup of modern club cultur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Beauty and Art*, 15(1), 263-282.
- Nam, H. J. (2015, September 22). 비비안 웨스트우드 “우리 모두 이민자가 될 것이다” [Vivian Westwood “We’re all going to be immigrants”]. *Huffpost*. Retrieved November 2, 2024, from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9>
- Park, J. (2010). *A study on subculture style presented in the 21st century fashion trend: Focused on hippie and punk*.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 Kim, M.-Y. (2016).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sexuality in Thom Browne fashion jacket.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and Costume Design Association*, 18(3), 183-196.
- Park, Y., & Kim, M. (2020). A study on the punk pattern Gad design using 3D printing.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25(4), 151-160. doi:10.21326/ksdt.2020.25.4.014
- Sohn, H.-M., & Park, K.-S. (2005).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punk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9(11), 1444-1453.
- Song, S., & Kim, M. (2005). A study on national fashion images, represented in Vivienne Westwood's 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6(2), 1-16.
- Vergara, V. (2023, May 31). What is silkpunk, and where should you get started? *The Portalist*. Retrieved October 20, 2024, from <https://theportalist.com/silkpunk-books>
- Vogue. (2016, February 22). A. F. Vandevorst fall 2016 ready to wear. Retrieved October 21,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a-f-vandevorst/slideshow/collection#8>
- Vogue. (2017a, March 4). Junya Watanabe fall 2017 ready to wear. Retrieved October 21,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ready-to-wear/junya-watanabe/slideshow/collection#4>
- Vogue. (2017b, June 12). Vivienne Westwood spring 2018 mens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mens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31>
- Vogue. (2017c, June 12). Vivienne Westwood spring 2018 mens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mens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31>

- 8-mens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2
- Vogue. (2017d, September 21). Moschino spring 2018 ready to wear. Retrieved October 21,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ready-to-wear/moschino/slideshow/collection#12>
- Vogue. (2018a, January 8). Vivienne Westwood fall 2018 mens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mens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12>
- Vogue. (2018b, January 8). Vivienne Westwood fall 2018 mens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mens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50>
- Vogue. (2018c, September 18). Vivienne Westwood spring 2019 ready-to-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55>
- Vogue. (2018d, September 18). Vivienne Westwood spring 2019 ready-to-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15>
- Vogue. (2018e, September 18). Vivienne Westwood spring 2019 ready-to-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56>
- Vogue. (2018f). Dilara Findikoglu spring 2018 ready to wear. Retrieved October 21,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ready-to-wear/dilara-findikoglu/slideshow/collection#6>
- Vogue. (2019a, February 17). Vivienne Westwood spring 2019 ready-to-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ready-to-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60>
- Vogue. (2019b, February 17). Vivienne Westwood spring 2019 ready-to-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ready-to-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6>
- Vogue. (2019c, February 17). Vivienne Westwood spring 2019 ready-to-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ready-to-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20>
- Vogue. (2019d, September 14). Vivienne Westwood spring 2020 ready-to-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0-ready-to-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14>
- Vogue. (2020a, February 15). Vivienne Westwood fall 2020 ready-to-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ready-to-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1>
- Vogue. (2020b, February 15). Vivienne Westwood fall 2020 ready-to-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ready-to-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13>
- Vogue. (2021a, February 19). Vivienne Westwood fall 2021 ready-to-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1-ready-to-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16>
- Vogue. (2021b, February 19). Vivienne Westwood fall 2021 ready-to-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1-ready-to-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33>
- Vogue. (2021c, February 19). Vivienne Westwood fall 2021 ready-to-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1-ready-to-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35>

- Vogue. (2021d, September 17). Vivienne Westwood spring 2022 ready-to-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2-ready-to-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12>
- Vogue. (2022, February 22). Vivienne Westwood spring 2022 ready-to-wear. Retrieved August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2-ready-to-wear/vivienne-westwood/slide-show/collection#22>
- Wilcox, C. (2004). *Vivienne Westwood*. London: V&A publications.
- Yang, S.-H., & Hahn, S. (2005). Socio-cultural meanings in advertisement of fashion luxury products: Focus on women's im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9(2), 267-278.
- Yang, Y. S., Chen, Y. N., & Roh, Y. S. (2009). A study on punk fashion design: Focused on punk couture.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9(1), 19-30.
- Yim, E.-H. (2003). Subcultural style in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high fashion: The case of punk lo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3(2), 71-85.
- Yoh, E. (2024). Research on features of eco-friendly fashion products for the development of typology of eco-friendly fashion product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32(1), 86-107. doi:10.29049/rjcc.2024.32.1.86
- Yoo, H.-S. (2006). A study on the impacts of the punk look of the 1970s on the punk fashion of the 1990s.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9(2), 11-22.
- Yum, H. J. (1998). The aesthetic qualities featured in Vivienne Westwood's 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7, 71-88.